

여성출소자의 사회재진입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Re-entry Experiences to Socialization of Female Ex-Offender : Based on Grounded Theory Methodology

이아름, 김미현,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A-Reum Lee(nissi414@naver.com), Mi-Hyun Kim(mh1001.mhk@gmail.com),
Dong-Hun Lee(dhlawrence05@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여성출소자들의 사회진입과정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출소 후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 및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9명의 여성출소자를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에서는 88개의 개념, 33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인과적 조건은 “사회적 낙인”, “피해의식”, “자라목으로 살기: 자기-낙인”으로 나타났으며, 현상으로는 “초라한 자기초상 그리기”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생활의 과부하”,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하는 막막함”, “내가 가진 자원들의 한계”, “속수무책”, “의지할 수 없는 가족들”로 나타났으며, 중재적 조건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내 삶을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기”, “자립의 도약판 놓기”가 나타났으며, 결과는 “새롭게 발견한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삶”,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뀜”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낙인의 장벽을 삶의 관점 바꾸기로 넘고 사회 속으로 다시 스며들기”로 상정하였다. 여성출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 진입에서의 경험 및 진입과정에서 필요한 도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 중심어 : | 여성출소자 | 사회재진입 | 근거이론 |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experiences of Female Ex-offender's re-entry process to socialization. For this, 9 female ex-offenders who receive housing support by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ere interviewed and the Strauss and Corbin's ground theory is used to approach to the data. In open coding, 88 concepts, 33 subcategories, and 15categories emerged from the data. In axial coding, central phenomenon were 'indulge in self pity', 'being isolated female ex-offender'. Intervention condition was 'human cooperation system'. Strategies were 'increase the receptiveness', 'establish the foundation'. Consequences were 'finding the stability in the life', 'changing the life direction'. In selective coding, main theme was 'overcome social stigma through changing life-direction and acclimate to society', and four phases were derived from the data. Based upon this results outcome, need of female ex-offender in the process of social transition and their experience were discussed.

■ keyword : | Female ex-offender | re-entry | Grounded Theory |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남성중심의 과거 역사를 본다면 여성은 가족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소외집단에 포함된다. 범죄 유형에 있어서 여성수감자는 남성수감자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이는데, 여성 수감자는 형기 종료 전에 출소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 수감자는 만기 출소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처음 체포된 범죄 유형에서도 여성 수감자의 경우 사기횡령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인 49.1%를 차지하는 반면, 남자 수감자는 폭력행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사기횡령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여성 수감자의 경우 남성수감자에 비하여 초범인 경우가 많았고, 연령상으로는 여성수감자의 경우 40대가, 남성수감자의 경우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1]. 범죄유형 뿐 아니라 여성출소자만의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관계 중심적’이라는 것인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 관계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말한다. 즉, 여성과 남성의 성별차이 중 하나가 여성이 ‘관계적 존재(relational beings)’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2], 여성은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정정책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3]. 또한, 여성 출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기회들은 매우 제한적이며 여성출소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처럼, 여성과 남성 수감자의 특성이 다른 것처럼 사회 재진입 경험 또한 남녀 간 차이를 보인다.

아직 국내에서는 여성출소자와 남성출소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 차이점을 밝힌 연구가 없지만, 국외에서는 여성출소자들이 남성출소자들에 비하여 노숙자가 되기 쉽고[5], 배우자와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고 밝혔다[6]. 또한 여성 출소자들이 출소 후 가족, 특히 배우자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성 출소자들보다 유대감이 깊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 이와 같은 사회 재진입 경험의 차이는 남녀 간 특성을 고려한 교정정책이나 출소 후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재의 교정정책 및 출소자지원은 대부분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여성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고려와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까지, 범죄학 연구들은 남성을 대부분의 범죄의 주체로 보고 남성의 범죄에 대해 설명해 왔는데[8], 이러한 경향은 국내의 교정정책수립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는 여성 출소자들 고유의 고충이 간과될 수밖에 없고 여성출소자들이 사회 재진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출소자는 ‘여성’과 ‘출소자’의 두 소외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재진입이 더욱 어려워진다. 여성출소자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보다 출소자의 대한 연구가 활발한 미국에서 또한 여성출소자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9]. 최근까지도 여성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들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10]. 이처럼, 여성 수감자가 증가하고 그들의 재범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출소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낮은 편이다.

수감 및 출소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미비는 여성출소자들의 재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여성범죄자 중, 초범이 38.9%, 재범이 27.5% (미상이 33.6%)로 삼분의 일에 가까운 여성출소자가 재수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미국에서는 여성출소자 중 재수감 되는 경우가 30%이고, 이중 3년 안에 재수감 되는 여성출소자 수가 57.6%, 첫 출소 후 6개월 안에 재수감 되는 경우는 23.3%로 나타났다[11]. 국내에서도 재범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교도소는 범죄자를 교정 교화하는 곳이 아니라 단지 회전문(revolving door)의 역할만 한다는 비난이 있을 정도로 [12], 여성 출소자들의 재범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출소자들의 사회진입에 대한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자녀와의 갈등을 들고 있다. 수감자들의 자녀는 엄마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다양한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며[13][14], 자녀들에게 범죄가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성 출소자에게 심리적 어려움이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여성은 출소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취업에 있어서도 무수한 장애물을 경험한다[15]. 여성 출소자들은 낮은 고용 기회와, 낮은 수입으로 사회에 진입했을 때 경제적 고충을 겪으며[16], 남성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17], 남성출소자보다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은 출소 이후에는 수감 전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여성 수감자들은 출소 후 가족들과의 관계개선, 새로운 주거환경, 구직활동 등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가 남아있다. 빈곤은 여성범죄에서 남성보다 더 취약하게 나타난다[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2001)에 의하면 여성출소자들은 월평균이 51만원-100만원이 전체응답자 중 61%를 차지하였다. 여성출소자들은 출소 후 가장 힘든 점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9], 최근에는 경제적, 양극화 및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라는 사회적 환경까지 영향을 미쳐 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20].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 출소자들은 출소 후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 낙인과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20]. 낙인에는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차별이 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낙인으로는, 출소자들 스스로가 자신을 사회부적응자로 보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낙인은 고용주들이 단순히 전과자들과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출소자들을 고용하지 않아 취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말한다[21]. 제도적 차원에서 낙인은 출소자들의 합법적 기회의 제한으로 신원조회 또는 전과조회를 통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다[22]. 이러한 낙인은 출소자들로 하여금 사회진입을 하는데 있어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생계와 이어지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취업과 관련된 기회구조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출소자의 자아관과 사회관, 종교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19]. 가족과 관련한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문제가 되는

요소이다[23]. 여성출소자들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출소자들에게 가족의 지지와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출소 후 사회 재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24][25]. 여성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위해서는 외부의 지지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 여성범죄자의 사회진입을 돕는 지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출소 후 사회적 지지는 출소자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26], 사회적 지지는 출소자들의 적개심을 줄이고, 자기통제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27].

Baldry[28]는 여성출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해서 안전하고 지지적인 장소를 강조하였다. 많은 수의 여성 수감자들이 직업알선을 필요로 하였고, 남성보다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더욱 많이 호소하는 여성출소자들에게 출소 후 거주할 집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7].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출소자를 위한 지원체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여성 지원센터 한 곳 뿐으로 여성출소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출소전의 수행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교정본부의 기획 하에 교정기관의 역할이라면 출소후의 수행자 지원은 법무부 산하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출소자들이 사회적응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29][30]. 지원방안에 대해 다루어 왔지만 여성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심층적인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81-108>[31] 논문의 후속연구로서 수행되었다. 여성출소자들을 인터뷰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가족관계경험과 그들의 삶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여성 출소자들은 출소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에 초점을 맞춘 앞선 연구와 달리, 여성출소자의 사회재진입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심층면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회재진입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심층 면접을 통해 여성출

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진입에서 겪게 되는 과정들을 탐색하여, 여성출소자의 사회진입을 위한 현실적인 프로그램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출소 후 여성이 사회진입과정에서의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II. 이론적 배경

여성출소자의 사회재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감생활에 대해 여성출소자의 특징을 교도소화 이론(Prisonization Theory)을 통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교도소화란 한 수용자가 교도소의 비공식적 사회구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일컫는 말로[32], 유입모델과 박탈모델로 설명된다. 유입모델은 수용자의 행동적 특성은 교도소에서의 경험 및 환경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데[33], 이 중에서도 남녀 수용자의 수감생활 중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34], 여성들에게 불리한 교도소 환경이 미치는 영향 보다는 여성의 본래적 특성이 수감생활에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높는데, 수감생활로 인해 이 부분이 단절되면서 남성출소자들에 비해 무력감, 출소 후 비관적 지각, 고립감 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이다.

교도소화 이론의 박탈모델은 효과적인 처벌과 교정을 위해서는 제한된 공간에서 폐쇄적 및 수동적 생활이 자연스럽게 수용자에 스트레스로 작용된다는 것으로 수용자의 수감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와의 단절과 교도소화가 심화되어 사회와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출소 후 사회복귀를 함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재진입에 어려움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본다[35].

여성 출소자의 출소 후 삶의 안정과 재범을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36], 출소자들이 다시 복귀하게 될 지역사회가 출소자들의 사회적응능력과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출소자들로 하여금 사회재진입을 돕고,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고 주장한다[37].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두 이론의 관점에서 수감생활로 인해 사회와 분리되어 있었던 여성출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재진입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15년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의 출소 후 사회진입과정에서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 중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통해 접근하였다[38]. 사례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행동변화를 설명해 주고 상호작용을 통한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근거이론은[39], 여성출소자들의 사회재진입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도전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들의 사회재진입과정의 경험을 다방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터뷰의 전사본을 바탕으로 사회재진입과정에서의 경험을 도출하는데 집중하였다. 출소 후 연구 참여자들이 마주한 어려움과 사회적응 과정에 관하여 반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면담하였다.

면담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 중 연구자들이 전화로 인터뷰 목적과 내용을 안내하여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연구자가 참가자들이 있는 장소(주택, 또는 자택근처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주제와 관련된 문헌분석을 통해 개발된 질문을 활용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이로써 심화된 질문이나 질문하는 어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자의 질문하는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면담의 내용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였다[40]. 면담은 여성출소자들에게 “출소 후 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출소자들의 출소 후

사회재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 도움이 되었던 자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 졌다.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출소 후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구조화된 후속질문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과 심정에 대해 풍부하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후속질문은 수감횟수, 수감 이유, 결혼기간, 자녀, 가족에 대한 질문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면담 중 중요한 내용이나 참여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에서 나타나 상황 또한 기록하였으며, 면담은 상담심리전공 교수가 주 질문자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의 타당도를 위해서 Guba와 Lincoln의 평가기준(사실적 가치, 일관성, 중립성)을 적용하여 [41], 상담전공 교수 1명, 상담 전공 박사과정 1명, 상담 전공 석사과정 2명의 연구자들이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면담자료를 분석하였다. 면담자료는 Strauss와 Corbin이 제안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 따라 분석되었다[38]. 개방코딩(open coding) 과정에서 원자료를 분해하여 유사한 관련이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하고, 하위 범주를 묶어 다시 범주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줄단위 분석(line by line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둘째로, 축 코딩(axial coding)과정에서는 개방코딩 단계에서 구성된 범주들을 패러다임모형, 논리적 다이어그램(logical diagram)에 의거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출소 후 맞닥뜨리게 된 현상(phenomenon)과 이것에 대한 원인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건인 인과적조건(causal condition), 인과적 조건과 현상에 개입하여 영향을 주는 조건인 맥락적조건(contextual condition)과 작용/상호작용에(action/interaction)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과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 행위인 작용/상호작용과 이것에 대한 결과(consequences)의 관계를 통해 패러다임 모형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서는 모든 범주를 통합하는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선택하였다. 자료수집원의 삼각검증을 거쳐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였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의 여성

지원센터 전문가에게 연구의 결과와 사실적 경험의 일치성을 검증 하였다. 또한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으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의 권리와 안전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NO.2014-10-001-004).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숙소 혹은 숙소 근처의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개인별 1회, 면담 시간은 최소 100분에서 최대 180분이 소요되었다.

2.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 또는 교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 9명의 심층인터뷰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받은 22명의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안내한 후 참여 의사를 물었다. 인터뷰를 거절한 12명을 제외하고, 총 10명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10명 중 1명은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수감 경력이 없어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총 9명의 인터뷰 자료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의 연령은 38세이상 54세 이하였으며,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특정 지역을 밝히지는 않았다. 연구 참여자 중 6명은 결혼유지, 3명은 이혼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의 수감이유는 사기, 업무상배임, 살인미수, 존속 살인 이었으며, 수감 기간은 4개월에서 5년이였다. 여성지원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는 2명, 학원운영과 의류업을 하며 직접 사업을 하는 참여자가 2명, 주부 1명, 현재 고객센터 상담사, 요양보호사로 직장을 다니는 참여자는 2명, 취업 준비상태에 있는 참여자가 2명이었다.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면담 참여에 대한 소정의 비용이 지급되었다.

IV. 결 과

1. 여성의 출소 후 사회 재진입 경험에 관한 기술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88개의 개념과 3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5개의 범주가 구성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 목록

개념	하위범주	범주
우리나라는 수감의 이유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수감경험 자체에 대한 선입견만 있다고 생각함	출소자 꼬리표	사회적 낙인
사람들은 보통 형을 받으면 무조건 나쁜 일을 했다고 인식함		
이력서를 여러 차례 넣어 봐도 출소자라는 선입견 때문에 취업이 안 됨	취업 장벽	피해 의식
출소 후 취직을 했지만, 원선에 수감 사실이 알려져 직장을 관두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냄		
2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집을 비우게 되어, 집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나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들이 수감 사실을 다 알게 됨	수감 사실이 알려짐	의심병
14년 동안 살던 동네에 수감 사실이 알려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어 이사를 고려함		
사람들에게 계속된 사기로 인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의심을 먼저 하게 됨		자존감 저하
수감 중 사기를 당한 후, 사람을 의심하는 병이 생김		
출소 후 사람을 믿지 못하고, 모두 적이라고 생각하고 벽을 치		자라목으로 살기: 자기-낙인
범죄로 인해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사회봉사활동 중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짐		
수감 사실을 알고 당당히 살려고 하지만, 출소 후 주위로부터 자존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음		감추고 싶은 수감 경력
나쁜 짓을 해서 수감된 것은 아니지만 빨간 줄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항상 위축됨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여성지원센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주위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망설여짐		자립 하고 싶으나 밀천 없음
돈 문제로 수감되었기 때문에 출소 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든지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하기 싫음		
출소 후, 자립할 밀천이 없어 막막함		1인 2역하기
혼자 아이들을 보살피며 살아야 하는 앞으로의 삶이 두렵고 막막함		
출소하고 나서 돈을 벌어서 자립해야하고 싶지만, 아이들과 남편 때문에 그럴 수 없음		생활의 과부하
알바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활고에 시달려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상황에 좌절함		
혼자 산다면 돈도 벌고 자립할 수 있지만, 자녀를 돌봐야하기 때문에 주거지원 없이는 자립이 어려움		엮힌 데 얽힌 가족의
출소 후 재혼하고 제 2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또 한 번 고비를 맞음. 순탄치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해 한탄함		

개념	하위범주	범주
직장은 가야 하는데 앞에 걸린 엄마를 모셔야 하는 상황에 답답하고 머리가 아픴	우환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함
보증금 몇 푼 걸려있는 집에서 월세로 근근이 버텨냄		
출소 후 마음 편히 잘 곳도 없을 정도로 빚만 남아있었던 막막한 상황	빚더미 속에서 시작 하기	경제적 파산자로서 하루하루의 삶
부도로 인해 생긴 1억 8천이라는 많은 빚이 남아있는 상황 때문에 무기력해 질 정도로 막막함		
출소 후에도 계속 빚을 갚아야 하는 답답한 상황임		실 들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차비가 없어서 가고 싶은 곳도 갈수 없을 정도로 빈털터리가 되어 비참한 심정	경제적 파산자로서 하루하루의 삶	
신용불량자라 본인 통장도 만들 수 없는 신세가 됨		약화된 건강
먹고 살기 위해서 출소 후 실 틈 없이 바로 직장을 구함		
출소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출소 직후 1년 동안 주문음식을 해서 돈벌이를 마련함		단절된 경력
수감 후 체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생각처럼 잘 따라주지 않아서 불편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직장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없음		미래에 대한 막막함
다녔던 회사에서 나이가 많다고 싫어하며 눈치를 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둠		
수감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자격증도 없다 보니 수감 후 일을 시작하는 게 위축 됨		속수 무책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고 느껴지는 막막함		
수감 전에는 계속 일을 해왔음에도 출소 이후에는 막상 취직할 곳이 없어 답답함		기본적인 취업 기술의 부재
컴퓨터를 다뤄본 적이 없어서 출소 후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게 서투름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 출소 이후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원망의 표적
여행사 외에 다른 일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취업에 어려움을 느낌		
기술이 없어서 식당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음		의지할 수 없는 가족들
같이 힘을 합쳐서 생활고를 이겨내기 바쁘는데, 수감됐던 아내를 계속해서 원망만 하는 남편		
나 때문에 남편이 술 먹고 망가졌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는 시어머니		지친 가족
수감 중 다른 가족들이 자녀를 돌봐주고 고생한 것을 생색내고 화풀이 함		
수감동안 자녀를 돌봐준 친정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지쳐있고, 남편도 방황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느낌		경제적 지위 하락
다른 가족이 지금까지 엄마를 모셨으니 출소 이후부터는 직접모시라고 함		
여행사를 다니면서 신혼여행 한 쌍 보내면 쉽게 벌수 있던 돈을 지금은 월급으로 받으며 생활함		초라한 자기 초상 그리기
엄마가 예전에 10만원을 만원처럼 쓰던 애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만원을 10만원처럼 씬		

개념	하위범주	범주
출소 전에는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수감 후에는 인생이 초라하게 변해버림		
수감 후 자신의 처지를 마주하면서 처참함을 느끼고 여자로서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움	수용하기 어려운 나의 모습	
출소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든 상황을 터놓을 곳이 없어 술로 해결하려 함		
남자 위주의 직장 구조에서 수감경력이 있는 이혼 여성이 혼자 살아가기 어려움	남성에 비해 여성으로서 갖는 상대적 박탈감	
창업 자금을 지원 받고자 스스로 찾아 연락해 봤지만 남성을 상대로 하는 곳만 있을 뿐, 여성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임을 알았을 때의 박탈감을 느낌		
여성출소자로서 취업과 관련된 기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딱 한군데(경기도 화성)라 지역적으로 멀어 업무도 못내는 상황		
아침저녁 교대로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함		
출소 이후 남편, 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함	가족 협력 공동체	
내가 번 돈을 빚을 갚고,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 함	주변 사람들의 지지	
함께 일하는 실장님이 가족처럼 예뻐해 주시며 배려해주심	버팀목이 된 직장의 지인들	
점장님도 배려해주시고, 손님들이 칭찬해 주셔서 힘을 얻고 일함		
출소자도 똑같이 사람처럼 봐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 감사함을 느낌		
친했던 친구의 고소가 상처였지만 오히려 삶에서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함	고난에 대한 재해석	
사업이 망해 수감되었지만 수감 경험을 쉬며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마음이 수감전보다 편해짐	내 삶을 반성하고 다시 일어 서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감사실이 억울했지만 탓하지 않고 인내함		
지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마음을 다잡고 출선수범 생활을 함	내 마음 다잡기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자 함		
부부관계는 최악이지만 내가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다잡으려 노력함		
나중에 미용실을 하려고 미용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함		
어떤 것을 해야 잘되고 못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이것저것 배우고자 함	취업 기반 닦기: 기술 교육과 자격증	자립의 도약판 놓기
한 달 동안 법무부에서 도와줘서 (미용)자격증을 취득함.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서 같이 노후 대책을 하고자 함		
관심 있는 분야의 기술을 배워 자격증 준비를 하게 됨		
낮에는 여러 가지(바리스타, 제과제빵, 떡) 교육을 받고 저녁에는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고를 견뎌		
주거지원을 받고, 천주교에서 창업 자금 혜택도 받게 되었음	안정적인	

개념	하위범주	범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출소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됨	생활을 위한 원조 받기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 자신의 생활이 정말 많이 변화 될 것 같은 기대감		
죄가 되는지 몰라서 한 행동으로 인해 수감되었기 때문에, 출소 후 뭐든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함	배움의 필요성	
수감 중, 배우지 못한 수감동료들을 보면서, 내 가족과 아이들을 정말 똑바로 가르쳐야겠구나 뼈저리게 느낌		
출소 후 지금은 더 열심히 살고 싶고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을 더 많이 배분고 싶음	삶의 관점 바꾸기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빠르게 살려 함	가치관의 변화	
더한 일을 겪더라도 절대로 범죄를 저질러선 안되며, 성질나는대로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제일 많이 깨달음		
세상을 보는 눈이 현실적으로 바뀜		
직접 배워서 만든 빵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낌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별 것도 아닌 것 같던 것도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짐		
빵이나 커피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 너무 재미있음	배움의 즐거움	새롭게 발견한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
지금 나이에 공부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의 응원에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함		
앞으로 10년 열심히 일하면 딸이 가족지 않게 시집 보낼 수 있고, 아들도 경찰이든 군인이든 돼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함	미래 그리기	
열심히 살다보면 잘되어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출소 5년 후, 큰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남들 먹고 사는 만큼 살 수 있게 됨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삶
남편과 함께 별면 한 달에 400 정도 버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하고 살 수 있음		
남편의 칭찬으로 인해 예전에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 존재의 가치도 올라갔다고 느끼게 됨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지금 나이에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하여 이런 말에 또 힘을 받고 살게 됨		

개방교당에서 나타난 개념과 하위범주 및 범주를 중심으로 여성출소자의 사회진입 및 적응 과정의 구체적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낙인

여성출소자들은 출소 이후부터 자신의 수감사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싸워야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수감 사유나 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수감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조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출소자 꼬리표를 절감하였다(연구참여자 4, 8) 이러한 선입견은 여성출소자가 사회적응을 하는 데 있어 큰 장벽으로 경험되었는데,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취업을 하는데 한계를 느낀다거나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워선예 수감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험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연구참여자 7).

“생각하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던 게 제가 여기 고객센터를 어떻게든 다니고 싶어가지고 다니려고 다니려고 했는데 못 다녔어요. <중략> 이미 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대요.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죠.” (연구참여자 7)

“분명히 아닌 면도 있는데 형을 받아 놓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다 형 받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된 거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8)

피해의식

연구참여자들은 수감과 출소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수감이 되었는데, 수감생활을 하면서 같은 방을 쓰던 다른 수감자에게 사기까지 당하면서 연구참여자는 사람을 의심하는 의심병이 생겼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5). 수감생활 중에 식구들이 어렵게 넣어준 영치금을 같은 수감자에게 빌려줬음에도 동료 수감자가 그 영치금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설사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연구참여자2).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적이라고 생각하며 벽을 치고 대하는 피해의식이 생겼다고 보고하였다(연구참여자 6). 또한, 여성출소자가 거주하던 집을 오랫동안 비우다 보니, 연구참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웃사람들이 수감사실을 다 알게 되면서(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이사까지 고려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4).

“일부러는 안하는데 제가 사는 집주변에나... 2년 가까이 안보이다 보이니까 같은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았죠.” (연구참여자 5)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고 좋은 얘기만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가 날 얼마나 봤는데? 의심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

“사람을 의심하는 병은 생겼어요. 원래 제가 사람을 잘 믿어요. 후배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제가... 사람을 의심하는 병이 생긴 건 뭘냐면 그 안에서 약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당했잖아요.” (연구참여자 5)

자라목으로 살기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사회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출소 후 수감사실을 잊고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지만, 연구참여자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자신감이 없어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곤 했다(연구참여자 5). 출소자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선입견과 부정적 시선들을 견디면서 자존감을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신원에 빨간 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라목처럼 위축되곤 했다(연구참여자 7). 새로운 꿈을 꾸며 주위사람들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다가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었다.

“봉사를 하면 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쁘게 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죠. 자신감도 없고 재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주변 시선들이 따갑다고.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하니까...” (연구참여자 7)

생활의 과부하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사회에 편입하는데 필요한 자립밀천이 없어 막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장 돈을 벌어서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구직활동을 시도 했지만, 막상 돌봐야 할 자녀와 남편 때문에 경제활동에만 전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연구참여자 8) 급히 어느 정도의 자금이 마련

되어야 생활이 가능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관련된 사기로 수감된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물론 남편에게조차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다.

“주거지원을 받더라도 내 돈이 있어야. 당장 몇 백이라도 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는 누구에게 돈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하 중략) 얘기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더 심각한 상태라니까요. 왜냐하면 마음 적으로나 모든 게 심각... 절대 남편한테 힘을 주고 싶지 그냥 이렇게 그런 걸 해주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하게 되면...” (연구참여자 8)

가정에 돌아온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어머니, 아내, 자녀의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어깨를 짓눌렀다. 특히, 수감동안 자녀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어머니의 죄책감은 출소 이후 자녀를 더 잘 챙겨줘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연구참여자 8).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막막함과 두려움이 앞섰다. 이혼가정은 그 어려움이 더했는데 자녀를 혼자서 돌보며, 생활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1인 2역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역할 또한 감당해야 했는데, 출소 후 재혼한 연구참여자 9의 경우 제 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기대감과 기쁨이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한 번 인생의 고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암에 걸리셔서 간병을 혼자 감당해야 했는데, 이처럼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굴곡진 삶을 한탄하고 있었다.

“재혼은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하 중략) 남편이라는 사람이 건강 상태도 안 좋고 하나에서 열까지 병원비로 다 나가고.” (연구참여자 9)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함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빚더미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6은 출소 후 잘 곳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고, 연구참여자 5는 보증금 몇 푼 걸려 있는 집에서 월세로 근근히 버텨내야 했다. 차

비가 없어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었다고 보고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0). 남편이 연구참여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조차 만들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연구참여자 2). 부도로 인해 생긴 막대한 빚 때문에 망연자실해 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연구참여자 3). 이런 상황 가운데 연구참여자들은 무일푼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나갔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출소를 하자마자 생업을 구하여 설 틈 없이 일하면서 막막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연구참여자 9).

“민사로는 갚아야 한대요. 그 언니가 민사로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부도나면서 애 아빠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제가 신용불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언니가 재판을 하거나 뭐로 하거나 민사로 하고 그래도 지금 제가 제 통장을 못써요. 신용불량자라도 체크카드는 해주더라고요. 체크카드 하나만 갖고 다니고.” (연구참여자 3)

“지금은 제가요 옛날에는 남편한테 그냥 어머니만 봐줘라 돈은 내가 벌겠다 했는데, 지금은 내가 10원을 벌어도 남편이 벌었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번 돈은 빚이 있는거는 조금씩 제가 모르게 갚고, 남편이 생활비는 몇 번씩 벌어서 내놓기는 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뭐 아무런 그런 거는 주지 않죠.” (연구참여자 10)

내가 가진 자원들의 한계

연구참여자들은 직장을 구해 하루빨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사회적응에 필요한 자원이 여러모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에게 건강악화는 가장 큰 문제였는데, 수감이후 급격히 떨어진 체력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연구참여자 9). 또한, 심리적 어려움도 사회적응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감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자격증도 없다보니 ‘내가 과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위축되는 마음 때문에 직장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였다(연구참여자 8). 힘겹게 취업을 했더라도 나이가 많다고 싫어하며 눈치를 주는 동료직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보고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는데 주위사람들은 직원들의 부당한 대처

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조언해주기도 했지만, 혹여나 다른 곳에 취직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되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다(연구참여자 4).

“그 때 나도 식당 다녔거든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식당일도 하고 그랬는데. 언니가 그때부터 좀 힘들어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몸을 주슬러야 하는데 세월이. 거기서 나오다보면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이란 게. 지금 현실에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거기서 수감해서 나온 사람이 몸 상태가요 하고 싶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런 게 있어요. 생활리듬이잖아요 깨졌다는 거죠. 거기서 그냥 밥 주는 거 먹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모든 게 마비가 된 거잖아요. 그니까 여기서 자립을 하다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고 언니는 자꾸 옆에서 짜증을 부리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 마음을. 몸 상태가 어떤지를. 그니까 짜증 많이 주더라고요.” (연구참여자 9)

“근데 이제 **** 다니다가 거기 한 7개월 있다가 거기서 나이가 많으니까 싫어하더라고요. 나가기를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왔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라는데 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를 가기위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저한테 피해가 올 것 같더라고요.” (연구참여자 4)

속수무책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으로 인해 실망한 가족들에게 사회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생활고 해결과 사회 적응을 위해서 취업이 불가피했지만, 마음처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전에도 전문직 일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단순 업무를 하거나 식당일을 하였고(연구참여자 7, 9) 취업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만 하며 생활을 이어가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7). 취업을 한 연구참여자들도 적응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수감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공백기가 길다 보니,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갖추지 못해 기업문화에서 지체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연구참여자 4는

취업을 해서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해야 했음에도 컴퓨터를 다뤄본 적이 없어 회사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 곳에서 원래 안하던 일이었으니까, 고객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1588 하면 물어보고 안내해주고 그런 걸 했는데, 처음엔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컴퓨터를 안 해봤으니까, (연구참여자 4)

“남편이 어떻게 내가 너랑 같이 사니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최고의 그런 안정은 가족이 같이 사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남편한테. 제가 전문 직종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구참여자 8)

의지할 수 없는 가족들

여성출소자들은 출소 후, 수감기간동안 자신으로 인해 지친 가족을 마주하였다. 자녀를 돌봐준 친정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지쳐있었고, 남편도 갈팡질팡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들에 대해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느꼈다(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들을 향한 가족들의 원망은 클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아들을 망가뜨렸다고 주변사람들에게 욕하며 다니는 시어머니도 있었고(연구참여자 7),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생활고를 이겨내기도 힘든 와중에 아내를 계속해서 원망하는 남편도 있었다(연구참여자 8). 수감생활 중 자녀를 돌보아 주었던 친척들이 생색내며 연구참여자에게 화풀이하는 경우도 있었고(연구참여자 9), 자녀들도 엄마의 수감사실이 상처가 되어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때문이라고 원망하곤 하였다(연구참여자 9).

“...가족이랑 갈등이 있더라고요...일단은 언니가 해준 거 있잖아요. 애를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면회 같은 거 도와주고. 모든 해준 거를 나오고 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걸 이제 생색내는 거죠. 고마운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연구참여자 9)

초라한 자기초상 그리기

여성출소자들은 출소 전과 달리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였다. 수감 전에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풍요롭게 살았지만, 출소 후에는 달라진

자신의 상황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연구참여자 4는 수감 전엔 수입이 많아 '10만원을 만원처럼 쓴다'는 얘기를 들곤 했지만, 출소 후에는 만원을 10만원처럼 아껴쓰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출소 후 남성에 비하여 여성으로서 갖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5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출소자를 지원하는 곳은 딱 한군데이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처럼 외롭고 위축된 생활을 줄곧 솔로 잊으려 하였고, 유일한 의지처로 삼았다.

“전화가 오면 저 혼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의지할 건 술이잖아요. 술 많이 의지했어요. 혼자 괴롭다보니까 술에 의지하다 보니까 재가 또 싫은 거예요 그게.”(연구 참여자9)

“저는 좀 지우고 싶은.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이하 중략) 나름 그래도 어디 가면 사모님 소리 듣고 그렇게 살았었다(이하 중략) 왜냐하면 사업을 신랑이 크게 했다고 했었잖아요.” (연구 참여자6)

주변 사람들의 지지

출소 후 사회진입에 디딤돌 역할이 되어준 것 중 하나는 주위 사람들의 지지였다. 특히, 가족과 협력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한 경우, 성공적인 사회진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3은 남편과 아침저녁 교대로 장사를 하였고, 연구참여자 5는 남편, 딸과 함께 장사를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 10은 자신이 번 돈으로 빚을 갚고, 남편이 번 돈으로는 생활비를 마련하며 재기를 위해 의기투합하였다. 직장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이들도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 실장님이 가족처럼 예뻐 해주셔서 배려를 많이 받았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고(연구참여자4). 식당에서 일하면서 점장님의 배려와 손님들의 칭찬에 힘을 얻었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연구참여자 7)

“가족이죠. 제일 고마운 건. 엄마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언니랑 동생이 많이 도움 줬거든요 변호사 비용도 대주고 엄마 아버지가 제일 감사하고 여기 법무부 여기서 지원받아서 감사하고 또 일하면서 점장님도 배려해 주시고 손님들이 인상 좋으시다. 너무 친절하시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두 달 밖에 안 되긴 했는데 그런 말 들을 때 되게 기분 좋게” (연구 참여자 7)

내 삶을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기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마주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참여자 2는 친했던 친구의 고소로 수감된 사실이 상처였지만,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 4는 사업이 망하면서 수감하게 되었지만, 이전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보고하면서 출소경험을 값지게 생각하며 주위로부터 받은 도움들에 감사해 하였다. 또한 자신이 수감경력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나쁜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 적응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힘든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다(연구 참여자 7). 출소 이후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힘들기도 했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 한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연구참여자 8).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현실에서 긍정적인 점들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은 연구참여자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증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최소한 그렇게 하기 전에 물어봤다면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더라는 한번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게 맞는거예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기회를 안주고 자기네가 딱 잘라버리더라구요. (이하중략) 안민쵸, 사람들을, 절대 안민쵸.(이하 중략) 상처는 맞는데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연구 참여자 2)

“성격이 워낙 긍정적이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하려고 노력하고 웃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하다보니까. 그나마 주변에서 이렇게 착한 데 인생이 너는 인생이 꼬이냐 이렇게 사나 말 하는데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연구 참여자7)

자립의 도약판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진입을 위해 경제활동이 필요했지만, 출소 후 아무 준비 없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집중하였다. 나중에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미용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연구 참여자 6),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할지 몰라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자 하기도 했다(연구참여자 8). 낮에는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교육을 받고, 저녁에는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불철주야 뛰어다녔다(연구참여자 8). 연구 참여자 10은 노후를 생각하며 출소 후 한 달 동안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서 미용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네일아트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자격증 준비와 함께 연구참여자들은 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과 주거지원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원조를 받았다. 공단을 통해 출소 후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다(연구참여자 5).

“미용은 제가 11년을 해서 잘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달 동안 열심히 법무부에서 도와주셔서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서 같이 노후대책을 하고요.”(연구 참여자10)

삶의 관점 바꾸기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이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중요함을 깨달았다. 연구참여자 10은 죄가 되는지도 모른 채 한 행동으로 수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식과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고 출소 이후에는 뭐든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수감 중에 많이 배우지 못한 수감동료들을 보면서, 내 가족과 아이들을 정말 똑바로 가르쳐야겠다고 교육의 힘을 뼈저리게 느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이후 가치관의 변화도 생겼다. 연구참여자 7은 수감 전엔 불법적인 행동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다. 연구참여자 4는 이전에는 생활고에 시달려 보지 않았었는데, 출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현실적으로 바뀌었죠.(이하 중략) 저는 여행사할때도 이혼하고서 한거 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어렵고 막 그런 게 없었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다. 아이들 데리고 사는가. 문제없겠다 그리고 워낙 또 고객들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을 만

나서 그런지 돈에 쪼달려본적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거 있잖아요 사람에대한 믿음이..” (연구 참여자4)

“뭐든지 배워야 되더라고요. 모르면, 이게 죄가 되는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라는거.”(연구 참여자 10)

새롭게 발견한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출소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자립을 위해 기술을 배우고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즐거움을 느꼈다(연구 참여자 7). 또한 가족들과 함께 밝은미래를 계획하며 행복함을 느꼈다. 열심히 살다며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다(연구참여자 6).

“저는 예기아빠한테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50인데 앞으로 10년 열심히 벌면 우리 ○○이 조금씩 벌어서 시집보낼 수 있고 지가 네일 아트라도 한다니까 전문대라도 가서 시집가면 남편한테 기안죽고 살 수 있고 ○○이 학교 보내서 경찰이 되던 군인이 되서 안정되게 살 수 있고 항상 좋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아 그래 10년 뒤에는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연구 참여자 3)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삶

출소 후 시간이 지나고 꾸준히 일을 한 결과, 여성출소자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남편과 함께 일 하면서 둘이 함께 번 돈의 일부를 저축도 할 수 있었다(연구 참여자3). 출소 후 5년이 지나고,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남들 먹고 사는 만큼 먹고 살 수 있었다. 주변사람들의 지지는 연구참여자들이 출소 후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6은 남편의 칭찬으로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기존재의 가치도 높아졌다.

“이제는 사업하지 마라 지금 우리 나이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빚을 안지기로 맘을 먹었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부터 우리가 벌면 한 달에 400 정도 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애들 가르치고 한 달에 100만원씩만 저축한다치고 100만원씩 저축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5년 뒤에는 그 돈 갖고 노후에 살 수 있으니까” (연구 참여자 3)

2. 여성출소자의 사회진입 및 적응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개념, 하위범주, 범주로 분해한 자료를 패러다임 모형에 의거하여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38]. 개방코딩에서 도출한 15개의 개념군을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재배열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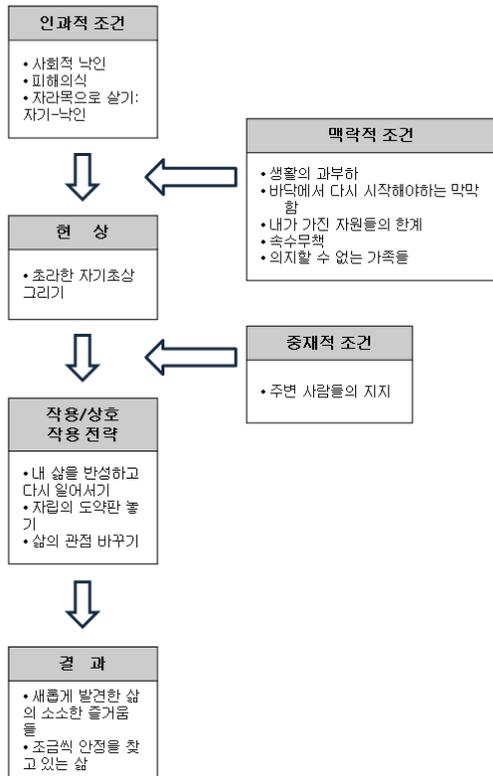


그림 1. 여성출소자의 사회진입 및 적응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현상(phenomenon)이란 작용/상호작용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고, 혹은 중심사건 등으로 현장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떠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건의 성격과 종류 등을 나타낸다[38].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현상으로는 「초라한 자기초상 그리기」로 상정했다. 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초라한 자기초상 그리기	기간	지속-일시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어떤 현상이 발현시키거나 촉발하도록 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된 것이다[38]. 본 연구에서는 초라한 자기초상 그리기라는 현상에 대한 일련의 사건인 인과적 조건들로 「사회적 낙인」, 「피해의식」, 「자라목으로 살기: 자기-낙인」으로 상정했다.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사회적 낙인	깊이	깊음 - 얕음
피해의식	강도	강함 - 약함
자라목으로 살기: 자기-낙인	기간	지속 - 일시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이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하는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작동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건이다[38]. 본 연구에서는 「생활의 과부하」,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함」, 「내가 가진 자원들의 한계」, 「속수무책」, 「의지할 수 없는 가족들」을 초라한 자기초상 그리기라는 현상에 대한 맥락적 조건으로 상정했다.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생활의 과부하	강도	강함 - 약함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함	기간	일시적 - 지속적
내가 가진 자원들의 한계	범위	전체 - 일부
속수무책	강도	강함 - 약함
의지할 수 없는 가족들	강도	강함 - 약함

중재적 조건(intervention condition)이란 구조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자 중심현상의 정도와 양상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38].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로 상정했다.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주변 사람들의 지지	강도	강함 - 약함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전략은 중재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현상에 대응하거나 이를 조정하고 다루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이다[38].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내 삶을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기」, 「자립의 도약판 놓기」, 「삶의 관점 바꾸기」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내 삶을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기	강도	강함 - 약함
자립의 도약판 놓기	적극성	적극적 - 소극적
삶의 관점 바꾸기	영역	전체 - 일부

결과(consequence)는 현상에 대응하거나 이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 작용/상호작용 전략수행에 의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소산이다[38]. 본 연구에서 결과는 「새롭게 발견한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삶」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새롭게 발견한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	적극성	적극적 - 소극적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삶	영역	전부 - 일부

3. 핵심범주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낙인의 장벽을 삶의 관점 바꾸기로 넘고 사회 속으로 다시 스며들기”으로 상정했다. “여자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단 한 군데 밖에 없다”(연구 참여자8)는 구술처럼, 연구참여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출소 후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다. 연구 참여자들의 출소 후 상황은 진퇴양난(進退兩難)과 같다. “출소 후 잘 곳도 없이 빗만 남아있었던 막막함”(연구 참여자6)과 “차비

가 없어서 가고 싶은 곳도 갈수 없을 정도로 빈털터리가 되어 비참한 심정”(연구 참여자10)등의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출소 직후 연구참여자들의 상황은 막막함뿐이었다. 뿐 만 아니라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이로부 터 오는 취업의 한계, 그리고 수감 사실을 원망하는 가족들과의 불화로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력서를 여러 차례 넣어 봐도 출소자라는 선입견 때문에 취업이 안됐다”(연구 참여자4)는 구술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은 물론, 생활과 이어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사실만을 가지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고, 출소 후 수감 전과 달라진 현실 속에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설상가상으로 악화되어서 직장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연구 참여자 9), 예상치 못한 가족의 우환 등으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출소 후 상황은 힘들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부부관계는 최악이지만 내가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다 잡으려고 노력하였다”(연구 참여자8)는 구술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약해지는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하였다. 또한, 함께 일하는 실장님이 가족처럼 예뻐해 주시며 배려를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출소 경험을 오히려 값지게 생각하면서 수감 전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4). 이처럼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사회의 여러 가지 장벽 속에서 의기소침해져 위축되어 가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힘이 되었고 힘든 현실 속에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인내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감 전 바쁘게만 살아오던 연구 참여자들은 수감 경험을 통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과, 배움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삶의 가치관도 변화하게 되었는데, 연구 참여자 7은 이제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주위로 부터 받은 도움을 생각하면서 베풀며 살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적인 힘과 삶의 방향수정은 출소 후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좌절하는 대신에 배움을 통하여 행

복감을 느끼며 성공적인 사회진입과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V. 논 의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 또는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 9명을 대상으로 출소 후 사회진입 경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근거이론은 참여자의 행위, 경험세계, 삶의 본질 등을 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해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42] 여성의 출소 후 사회진입 경험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의 행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은 원자료(Raw Data)를 줄 단위 분석과 범주화 작업을 통해 개방코딩 하였으며, 축코딩, 선택코딩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연구참여자들이 출소 후 사회적응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중 하나는 ‘출소자 낙인감’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이후부터 자신의 수감사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싸워야 했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이 수감 사유나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수감 사실 자체만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출소자 꼬리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연구참여자 4, 8). 이러한 이유로,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자신의 수감경력이 주변에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며 수감사실을 감추려 애썼지만, 지속적인 수치감과 두려움, 억울함을 느끼기도 했다(연구참여자 4, 5). 또한, 이러한 편견이 연구참여자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수감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주진 않을까 걱정이 번지기도 했다(연구참여자 4). 하지만, 자신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나 부모, 자녀까지도 모든 상황의 탓을 연구참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심리적 어려움은 가중되어만 갔다(연구참여자 7, 8, 9).

게다가 여성출소자들에 대한 낙인은 연구참여자들이 취업활동에 진입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수감 사실로 인해 취업 자체가 안 되거나(연구참여자 4), 취업이 되었더라도 수감사실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이윤호, 김대권[21]은 출소자가 겪게 되는 사회적인 차별 중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회인식에서의 제한이 오히려 법률적 제한보다 사회복귀를 막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을 통해 공식적인 범죄자라는 낙인을 받고, 무력하고 초라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낙인이론(Labeling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낙인이론이란 범죄자라는 낙인이 하나의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사회적 반응으로 인해 스스로 범죄자라는 자아개념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당당하게 살아보려 다짐해 보지만 점차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였다. 자신의 삶에 범법자와 수감이라는 빨간 줄이 그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홍글씨와 같이 자신 스스로를 위축되게 하였다. 이러한 출소자의 사회적 낙인은 여러가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여성수감자들은 남성수감자에 비해 더 많은 정신 건강 문제를 더 경험한다는 연구들이 있다[43]. Glaze와 Maruschak[44] 연구에서는 남성수감자에 비해 여성수감자가 약 1.5배 가량 더 많은 심리·신체적 문제를 경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Dallaire[45]의 연구에서도 남성수감자(7%)에 비해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여성수감자(15%)가 더 정서적, 신체적으로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사람들의 편견과 낙인 때문에 억울함, 우울, 불안, 위축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감정들을 여성출소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다뤄줄 수 있는 심리적 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46]에서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어려움 다룰 수 있는 상담, 교육,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여성출소자로 하여금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여성출소자의 심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홍보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최영신과 황정임[29]의 연구에서 여성 출소자의 심리지원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영국의 지원단체인 WIP(Women in Prison)는 사회적 지원을 위한 매뉴얼(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 단체는 여성출소자에 대한 지지 및 지원체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안내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여성출소자의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확대와 홍보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새로운 삶을 꿈꾸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로 인해 막막함과 무기력감을 경험하였다(연구참여자 8, 9).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조금이라도 나아진 삶을 희망했지만 여전히 빛이 있는 경제적 상황에 부담감을 느꼈다(연구참여자 3, 6, 10). 값야야 할 빛이 있지 않더라도 생활비나 자녀들 양육비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소 후 어떠한 준비도 없이 경제활동에 바로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연구참여자 5, 9). 돈 문제로 수감된 경제사범 연구참여자들은 또 다시 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 싫어 경제적으로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 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려하였다(연구참여자 8). 이처럼 사면초가에 놓인 연구참여자들은 누군가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혼자 술로 해결하거나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연구참여자 9).

또한, 연구참여자 뿐만 아니라 수감기간 동안 연구참여자를 대신해서 자녀를 돌봐주었던 부모나 가족들 또한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소 후 그동안 하지 못한 부모부양이나 자녀의 돌봄을 한꺼번에 떠안게 되거나, 연구참여자들이 없었던 시간동안 희생한 것에 대해 대가를 바라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여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한꺼번에 맞이하면서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경제활동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작 여성으로서 자신의 모습은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성출소자가 출소 후 처해지는 경제적 상황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여성출소자이기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덜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김인숙[19]의 연구를 보면 여성의 범죄동기가 ‘생활비 충당’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 재범자의 경우 그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들이 출소 전후로 어머니로서 자녀와 관련된 물질적 고충을 느끼고 있어[47] 이에 대한 생활고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umola[48]의 연구에서도 수감 전의 직장유무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여성 범죄자(50%)가 남성 범죄자(27%)에 비해 출소 전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두 배 가량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수감자와 여성수감자는 동등하게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4]. 우리나라의 여성 출소자 또한 안타깝게도 출소 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제한된 취업구조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여성 범죄자의 생활환경은 하류가 39.4%, 중류가 22.8%, 상류가 0.6%로 하류가 약 40%에 육박해, 여성범죄자들의 생활고가 현실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49].

이처럼 여성출소자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취업활동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남성출소자보다 여성출소자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성위주의 사회구조에서 여성으로서 취업하는 것 자체가 장벽이 있는데다가,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 없이 늦은 나이에 취업전선에 뛰어들기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출소자에게 재범은 생활고를 해결하는 또 다른 유혹으로 다가 올 수 있다. 여성출소자에게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여성지원센터[50] 한곳뿐이다. 여성출소자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여성출소자를 지원하는 센터는 한곳에 그쳐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시설 확대를 필요로 해 보인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출소자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로 해 보인다[51].

세 번째로 연구참여자들은 무력하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때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힘든 자신을 도와주는 가족들이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는데, 남편과 함께 아침, 저녁에 교대로 함께 장사를 하거나(연구참여자 3), 가족이 함께 하여 빛은 깊고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5, 10). 이렇듯 연구참여자가 혼자서는 버거울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하면서 사회에 재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족 외에도 일하는 직장동료들의 배려와 칭찬은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버팀목이 되는 큰 힘이였다(연구참여자 4, 7). 연구참여자들이 사회 재진입 과정 가운데서 주변사람들로 받는 인정은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도 올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연구참여자 6, 7)

이렇듯 여성출소자에게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출소 후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별 차이에 주목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관계적 존재(relational beings)”라는 것을 강조한다[2][52]. 이것은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 자녀, 친구와 같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여성출소자들에게 가족의 의미는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 중 가장 강력한 부분인데, 김두섭, 전영실[53]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여성 수행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여성출소자들에게 동거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19].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출소자는 대다수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고 재결합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29]. 그러나 수감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면 가족의 해체나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데[54] 출소 후 갑자기 가족과의 재결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따라서 출소 전부터 출소후의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서신이나 전화 또는 가족만남의 날, 가족사랑캠프와 같은 다양한 접견의 방법을 통해 가족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여 유대감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 가족 외에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관계를 형성할 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출소 후 막막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은 자신의 삶을 수용할 수 있었던 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연구참여자 2, 4, 7). 상처가 되고 힘든 수감이라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삶의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연구참여자 2), 수감경험을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오히려 마음이 수감 전보다 편해지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4). 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잡아 자립기반을 닦고, 사회생활을 진입하기 위해 역량을 길러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도약판이 되었다(연구참여자 6, 7, 8, 10). 최병욱, 김성희[55]의 연구에서는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스스로 자신에게 몰입하여 인간적인 삶, 행복한 삶을 위해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와 가족이 더불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재진입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전제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이 부분은 연구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자립기반을 닦으면서 작은 소망을 가꾸는 태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더욱 강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여성출소자를 지지 및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며, 여성출소자의 긍정적인 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모임들을 지속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선행 연구결과를 보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조집단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조집단에 참여하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유대 증진되고 손상된 자존감 회복과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56]. 따라서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출소자 또한 수감과 출소 그리고 사회진입과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같은 처지에 있는 구성원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여성출소자들이 사회 재진

입 과정에서 진과자라는 피해의식과 무기력감을 느끼면서도 주변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도약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초범의 비율이 높은 여성출소자의 사회 재진입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출소자들에게 사회적응을 위한 취업교육 및 알선, 주거지원과 같은 외적지원 외에도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과 같은 내적자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성출소자에게 필요한 지원들을 정리해 보자면, 출소 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억울함,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 없이 낮은 나이에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이러한 여성출소자에게 제공되는 취업 교육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다양하고 여성출소자에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개설 및 확대 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여성출소자에게는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사회적응에 많은 도움이 됨으로 이에 대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스스로의 내적자원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였다.

여성출소자들의 사회재진입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성출소자들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시 될 필요가 있다. 출소자 이면서 여성으로서 겪는 여성출소자의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로 한데 이것을 고려하는 개입이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민간단체 Free Indeed는 출소 6개월 전부터 출소 후 12개월까지 멘토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멘토링을 통해 삶의 기술, 교육, 재정관리, 정신건강 등의 문제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57]. 캐나다의 경우에는 Community Chaplaincy가 실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지원, 책임감, 관계성, 목표설정 등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종교 공동체를 배경으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공동체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하게 된다[58]. 따라서 여성출소자들이 감당해야하는 사회적 낙인이나 피해의식이나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느끼는 막막함에 대해 전문적인 심리적 상담

이나 치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출소자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삶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여성출소자에게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사회재진입을 하는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필요로 하다. 그러나 정부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 사회 단체나 종교단체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출소자 지원과 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앞서 사회통합이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회기술능력이 안정적인 사회재진입을 위해 필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해 사회적 기술능력을 정부기관(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전문적으로 학습하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공동체의 일환으로 적용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부기관과 지역 사회와 종교단체들의 협력이 여성출소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여성출소자의 취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는데, 미국 연방정부의 출소자의 취업지원을 살펴보면, 출소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59],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60].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여성출소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로 해 보인다. 더 나아가 여성출소자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한 좀 더 섬세한 취업프로그램과 교육 장소의 접근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설 및 확대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을 제공받는 대상자 중에서 연구참여자를 추천을 받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여성출소자의 경우까지 일반화 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공단의 주거지원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있었는데, 주거지원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감자의 경우 모범수가 많아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연구참여자의 특성이 고려 필요로 있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는 여성출소자의 범죄유형이

나 수감기간 등의 범죄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응 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재진입에 대한 부분은 살펴볼 수 있었으나, 사회적응 과정에서 시간차를 두고 변화되는 모습은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에는 사회복지 성공 요인과 재범 예방 요인을 밝히는 연구를 중단으로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1] 범죄백서, 2015.
- [2] S. Covington and B. Bloom, "Gendered justice: Wom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Gendered justice: Addressing female offenders*, pp.3-23, 2003.
- [3] P. O'Brien, *Making it in the free world: Women in transition from prison*, SUNY Press, 2001.
- [4] S. D. Taylor, "Women offenders and reentry issues,"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Vol.28, No.1, pp.85-93, 1996.
- [5] B. Bloom and S. Covington, *Gender-specific programming for female offenders: What is it and why is it important*, In 50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Washington, DC, 1998.
- [6] M. Chesney-Lind and B. Bloom, "Feminist criminology: Thinking about women and crime," *Thinking critically about crime*, pp.54-65, 1997.
- [7] N. G. La Vigne, L. E. Brooks, and T. L. Shollenberger, *About the Returning Home Study*, 2009.
- [8] S. Covington and B. Bloom, "Gendered justice: Wom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Gendered justice: Addressing female offenders*, pp.3-23, 2003.
- [9] P. Schram, B. A. Koons-Witt, F. P. Williams, and M. D. McShane, "Supervision strategies and approaches for female parolees: Examining the link between unmet needs and parolee outcome," *Crime & Delinquency*, Vol.52, No.3, pp.450-471, 2006.
- [10] Rettinger, L. Jill, and D. A. Andrews, "General risk and need, gender specificity, and the recidivism of female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37, No.1, pp.29-46, 2010.
- [11] Department of Justice, 2007.
- [12] 윤옥경, "전과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교정학회소식*, 제42권, pp.7-9, 2007.
- [13] P. J. Baunach, *Mothers in prison*, Transaction Publishers, 1985.
- [14] E. C. Hostetter and D. T. Jinnah, *Families of adult prisoners*, Washington, DC: Prison Fellowship Ministries, 1993.
- [15] J. Petersilia, *When prisoners come home: Parole and prisoner reent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16] N. Freudenberg, J. Daniels, M. Crum, T. Perkins, and B. E. Richie, "Coming home from jail: the social and health consequences of community reentry for women, male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95, No.10, pp.1725-1736, 2005.
- [17] N. Messina, W. Burdon, and M. Prendergast, *A profile of women in prison-based therapeutic communities*, Draft. Los Angeles: UCLA Integrated Substance Abuse Program, Drug Abuse Research Center, 2001.
- [18] L. J. Rettinger and D. A. Andrews, "General risk and need, gender specificity, and the recidivism of female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37, No.1, pp.29-46, 2010.

- [19] 김인숙, “여성출소자들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6권, pp.9-31, 1992.
- [20] 박민선, 이원복, 김미숙, 박혜련,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2)-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 확충방안: 종교단체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제25권, pp.1-503, 2011.
- [21] 이윤호, 김대권, “전과자들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경험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2호, pp.27-60, 2007.
- [22] 천정환, 김기현, “교도소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교정적 의의,” 교정연구, 제48권, pp.193-225, 2010.
- [23] D. P. Farrington and K. A. Painter, *Gender differences in offending: Implications for risk-focused prevention*, London: Home Office, 2004.
- [24] E. F. Fama and M. H. Miller, *The Theory of Finance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Fama The Theory of Finance, 1972.
- [25] L. Cooper-Patrick, J. J. Gallo, J. J. Gonzales, H. T. Vu, N. R. Powe, C. Nelson, and D. E. Ford, “Race, gender, and partnership in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Jama*, Vol.282, No.6, pp.583-589, 1999.
- [26] F. T. Cullen, “Social support as an organizing concept for criminology: Presidential address to the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Justice Quarterly*, Vol.11, pp.527-560, 1994.
- [27] A. Hochstetler, M. DeLisi, and T. C. Pratt, “Social support and feelings of hostility among released inmates,” *Crime & Delinquency*, Vol.56, No.4, pp.588-607, 2010.
- [28] E. Baldry, “Women in Transition: From Prison to...,” *Current Issues Crime Just*, Vol.22, p.253, 2010.
- [29] 최영신, 황정임,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p.15-214, 2006.
- [30] 이윤호, 윤옥경, 남재성, 한혜현, 김순석, 김대권,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6.
- [31] 이동훈, 신지영, 조은정, 김진주,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 *한국심리학회*, Vol.21, No.1, pp.81-108, 2016.
- [32] C. Hemmens and J. W. Marquart, “Straight time: Inmates’ perceptions of violence and victimization in the prison environment,”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Vol.28, No.3-4, pp.1-21, 1999.
- [33] J. Irwin and D. R. Cressey, Thieves, “convicts and the inmate culture,” *Social problems*, Vol.10, No.2, pp.142-155, 1962.
- [34] M. D. Reisig, M. Morash, and Y. H. Lee, “Powerlessness, isolation, and future expectations: A gender based analysis of Korean inm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Vol.23, No.2, pp.215-226, 1999.
- [35] M. T. Zingraff, “Prisonization as an inhibitor of effective resocialization,” *Criminology*, Vol.13, p.366, 1975.
- [36] J. Chan, H. P. To, and E. Chan, “Reconsidering social cohesion: Developing a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75, No.2, pp.273-302, 2006.
- [37] 윤재홍, *수형자 직업능력개발체제의 사회적 자원과의 연계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38] A. Strauss and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1990.
- [39] 김진숙, 이혁구, 이근무, “중산층에서 탈락한 개인들의 경험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접근-재진입 시도와 실패를 경험한 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

구, 제43권, 제4호, pp.195-230, 2012.

[40] 김영천, *사이버가정학습 우수운영사례 질적연구*,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41] E. G. Guba and Y. S.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1981.

[42]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14.

[43] P. R. Magaletta, P. M. Diamond, E. Faust, E. M. Daggett, and S. D. Camp, "Estimating the Mental Illness Component of Service Need in Corrections Results From the Mental Health Prevalence Projec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36, No.3, pp.229-244, 2009.

[44] L. E. Glaze and L. M. Maruschak, *Parents in prison and their minor childre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2008.

[45] D. H. Dallaire, "Incarcerated mothers and fathers: A comparison of risks for children and families," *Family relations*, Vol.56, No.5, pp.440-453, 2007.

[46] <http://koreha.or.kr/support/support-work?item=10>

[47] 이동훈, 전지열, 신지영,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1권, 제3호, pp.327-364, 2016.

[48] C. J. Mumola,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2000.

[49] 법무부 연수, *범죄백서*, 2013.

[50] <http://woman.koreha.or.kr/>

[51] J. Belknap,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 Wadsworth, Thompson, Belmont, CA, 2007.

[52] S. S. Covington, "Women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omen's Health Issues*, Vol.17,

No.4, pp.180-182, 2007.

[53] 김두섭, 전영실, *여성 수형자의 수형 생활 실태*,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6.

[54] 신연희, *기혼여성재소자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55] 최병욱, 김선희,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인문치료 사례연구," *인문과학연구*, Vol.35, pp.605-636, 2012.

[56] 안효원, 양소남, "자조집단 참여가 컴퓨터 퇴소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19(단일호), pp.185-204, 2008.

[57] <http://www.freeindeedne.com/our-purpose/>

[58] www.communitychaplaincy.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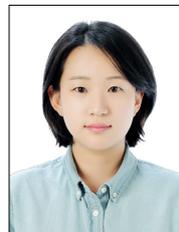
[59] <http://www.bonds4jobs.com/>

[60] <http://www.doleta.gov/business/Incentives/opptax/>

저 자 소 개

이 아 름(A-Reum Lee)

준회원



- 2017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7년 2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카운슬링센터 시간제 상담원

<관심분야> : 심리상담, 출소자 가정

김 미 현(Mi-Hyun Kim)

준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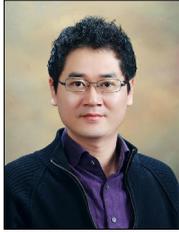


- 2013년 9월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2015년 9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관심분야> : 심리상담, 출소자 가정

이 동 훈(Dong-Hun Lee)

정회원



- 2000년 9월 ~ 2006년 2월 :
University of Florida(박사)
- 2006년 3월 ~ 2007년 8월 : 한
국청소년상담원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
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한부모 가정과 자녀, 출소자 가정, 재난 심리, 트라우마, 위기 개입